

닐 스미스의 지리정치경제학, 제국, 그리고 신자유주의*

Neil Smith's Geopolitical Economy, Empire, and Neoliberalism

이승욱**

이 논문에서는 닐 스미스의 이론을 지리정치경제학, 제국, 신자유주의, 이상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첫째, 스미스는 현대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지정학과 지경학의 다양한 방식의 연계에 주목하면서 지리정치경제학 이론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둘째, 스미스는 미국 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분석을 통해, 미국 제국의 비연속성과 함께 연속성에 대한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했고, 이와 함께 지리적 지식의 생산이 제국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의 신자유주의와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은 계급 프로젝트로서의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반신자유주의 실천 전망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성찰 지점을 제공했다. 이상의 스미스의 세계에 대한 통찰은 제국질서의 변화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이론적·실천적 지점들을 제시해준다.

주요어: 닐 스미스, 지리정치경제학, 지정학, 지경학, 제국, 신자유주의

1. 들어가며

2015년 3월 중순은 한국 외교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면서도 중요한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한반도 문제를 관장하고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 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3A2044551).

**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geolee@kaist.ac.kr)

있는 고위급 당국자가 하루 차이로 방한했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류젠차오(劉建超)는 3월 15일에서 18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은 같은 달 16일에서 17일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외교당국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주요한 이슈는 미국이 한반도에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또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와 중국이 추진 중인 AIIB(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가입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효정, 2015). 한미 양측은 부인했지만 양국이 사드 시스템 설치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방한 중이었던 류젠차오는 우리 측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이에 러셀 차관보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보안 장치에 왜 제3국이 항의하느냐며 반박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같은 시기에 방한한 미중 외교당국자 간의 설전이 오간 것이다. 사드 배치 이슈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가입 요청을 한 반면에, 미국은 AIIB가 국제개발은행으로서 지배구조와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한국의 가입을 만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영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들이 가입을 결정한 이후에서야 뒤늦게 가입을 선언했다. 문제는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에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러셀 차관보가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에 중국은 지난 9월 3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했고, 참석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천안문 성루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참관했지만, 열병식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외교 전략의 해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이슈들은 한반도가 중국이라는 떠오르는 지경학적 파워(geo-economic-power)와 미국이라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파워(geopolitical power) 간 갈등의 최전방에 자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선택의 딜레마는 앞으로 더욱더 증폭될 것이고, AIIB나 사드 등의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질서 변화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위해서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실천과 담론들의 상호적 구성에 주목한 지리정치경제학(geopolitical economy)적 접근이 필요하다(Lee, 2013). 다시 말해 지정학과 지경학을 별개의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담론과 물질적인 영역에서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갈등하는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역동적인 세계질서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미중 간 갈등의 고조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 또는 제국질서의 해체가 가속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초 소련 주도의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산되었고,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이에 대해 인류가 ‘역사의 종언’에 도달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던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도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변을 겪고 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鄧小平) 주도하의 개혁개방 이래 빠른 속도로 성장한 중국의 경제력은 이미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

-
- 1)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안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충성도 테스트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재호, 2015). 사드와 AIIB 이외에도 한일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식 참석 문제 등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의 열병식에 불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면서 내정간섭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조준형, 2015).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2015년 여당 대표는 “우리에겐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미국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이다”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생산(GDP)에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로 올라섰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중국에서 미국의 세계 경제체제 운영의 핵심적인 기구라 할 수 있는 IMF와 세계은행을 대체할 것이라 평가받는 AIIB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면서 점점 많은 이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종언을 점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세계질서의 재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리정치경제학과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론화한 대표적인 비판지리학자가 닐 스미스이다. 사실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을 이론화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지리학자이다. 또한 그는 ‘지대 차이(rent gap)’ 개념 등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선도적인 비판적 연구 등으로 도시지리학자로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또 다른 중요한 학문적 공헌은 미국 제국의 등장, 변화, 그리고 해체의 과정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고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식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자유주의(liberalism)의 허구성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제국의 운영과 확장 과정에서 지리적 지식이 어떻게 공헌했는지 밝혔으며, 지정학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이론적 성찰을 제공했다. 비록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미 제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스미스의 예리한 통찰력은 제국 질서의 격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한국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리정치경제학, 제국, 신자유주의, 이상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닐 스미스의 연구와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²⁾

2) 이 글에서는 인문지리학과 비판정치경제학 전반에 걸친 닐 스미스의 폭넓은 이론적 지평 가운데 그의 지정학과 지경학에 대한 연구들을 이론적 관점의 측면에서 ‘지리정치경제학’, 그리고 이론적 대상의 측면에서 ‘제국’과 ‘신자유주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2. 첫 번째 키워드: 지리정치경제학

닐 스미스는 지리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미국의 헤게모니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을 연구하는 데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발전시킨 개념들은 지정학과 지경학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스미스는 적지 않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이 범했던 경제주의(economism) 오류에 빠지지 않고,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지정학과 지경학(특히 자본주의)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의미한 분석을 발전시켰다.³⁾

그는 세계화가 계급 프로젝트(class project)인 동시에 지정학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국가프로젝트(national project)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테러와의 전쟁’ 역시 안보 등과 같은 지정학적 이해와 함께, 석유를 둘러싼 이해관계보다 훨씬 복잡한 지배 엘리트의 지경학적 이해가 함께 뒤얽혀 있음을 드러내었다. 예를 들어

3) 최근 비판지리학계에서는 지리정치경제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와 조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권력의 자본주의 논리(capitalist logic of power)와 영역적 논리(territorial logic of power)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제국의 작동을 자본주의와 영역주의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영역주의를 단지 영토의 새로운 획득, 그리고 제국의 경제 논리를 자본주의 논리의 작동으로만 제한해서 설명했다는 한계가 있다(Lee, 2013). 짐 글래스먼(Jim Glassman)은 지리정치경제학에 대해 지리(geography) 또는 지정학(geopolitics)이 정치경제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설명했다(Glassman, 2015). 국내에서 진행된 지리정치경제학에 대한 주요한 연구로는 최영진(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방법론적 국가주의와 영역주의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다중스케일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창원공단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분석했다. 글래스먼의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정치경제적 과정들을 스케일이라는 지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 중심의 지정학과 지경학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공간적 타협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지정학적 논리와 자본주의적 논리, 비자본주의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지경학적 논리 등 다양한 방식의 관계 맺음을 지리정치경제학으로 규정했다(Lee, 2013).

스미스는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한 이후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관이 추진한 이라크 재건사업이야말로 이라크전쟁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Smith, 2005a: 177~178). 즉, 점령 지역의 안보나 평화의 회복보다 우선시해서 추진했던 사업은 세금, 무역 및 투자 관련 법률의 개정과 이에 따른 경제의 자유화, 국유 자원의 민영화, 이라크의 은행, 광산, 공장 등에 대한 해외 소유권의 법제화로, 이는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측면이 2000년대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만 새롭게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20세기 초반 윌슨 대통령이 추진했던 ‘글로벌 먼로독트린(global Monroe Doctrine)’에서부터 추진된 미국 중심의 세계화 프로젝트(US globalism)의 차원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 스미스의 주장이다. 즉,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체제의 운영으로부터 획득되는 지경학적 이익은 안정된 지정학적 질서와 항상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mith, 2006). 따라서 지정학과 지경학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이 두 논리와 이해가 어떻게 연결되고 갈등하고 타협하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미 제국이 기획한 세계화 프로젝트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스미스는 미 제국의 이해추구에서 지정학보다는 지경학의 논리가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민주의(colonialism)를 추구했던 유럽의 제국주의와는 달리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의 초점은 영역적 접근에서 지경학적 접근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국의 권력은 세계시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작동했고, 부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지정학적·영역적 측면에서 작동했다고 주장했다(Natter, 2005: 245). 특히 스미스는 2001년 9·11 이전과 이후의 미국 세계전략의 성격을 구분하면서, 2001년 이전에는 지정학보다는 지경학적 측면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했다.“US globalism ... its substance was geo-economic than geopolitical.” Smith, 2005a: 147). 19세기 전 세계의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계산과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주된 전략으로 내세웠다면, 미국 윌슨 대통령이 천명한 글로벌 먼로독트린은 획득할 수 있는 식민지

가 거의 없는 조건하에서 군사적인 수단보다는 시장의 확대를 세계 전략의 초점으로 두었다는 것이다(“with the market more than the military.” 위의 책, 181). 물론 스미스는 결코 지정학이 한물갔거나 쓸모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윌슨 대통령 시기부터 2차 세계 대전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1980년대 자본주의 세계화가 확산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세계전략은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했으며 지경학적 파워는 지정학적 파워를 대체했다고까지 주장했다(위의 책). 2001년 9·11 이후의 이라크전쟁은 이런 지경학적 논리 작동의 연속성을 단절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라크전쟁 역시 미국 지배계급의 지경학적 이해가 중요하게 작동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러한 관점은 데보라 코웬(Deborah Cowen)과 함께 쓴 논문 “After geopolitics? From the geopolitical social to geoeconomics”에서 이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논문은 앞서 살펴본 스미스의 미국 제국의 지정학과 지정학의 관계 변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과는 긴밀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우선 지정학을 영토, 경제, 사회적 형태의 아상블라주(Assemblage)로 보고 이를 ‘geopolitical social’로 새롭게 개념화했다. 그리고 이들은 ‘geopolitical social’은 점점 해체되고 있고 ‘geoeconomic social’이 이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재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즉, 9·11사태와 뒤이은 테러와의 전쟁은 지정학 담론의 확산으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현실 세계의 변화는 ‘geoeconomic social’의 전면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의 논리가 시장과 초국경적 흐름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으며, 국가 역시 지경학적 대리인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geoeconomic social’을 구성하면서 지경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Cowen and Smith, 2009).

스미스의 기존 지리정치경제적 논리들은 주로 미국 제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코웬과의 연구는 현실 세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 분석에서는 지정학적 논리가 지정학적 논리에 비해 실천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미국의 대외전략의 측면에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또는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정학적 논리를 강조한 스미스의 시각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2001년 이후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 제국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군사적·영역적 측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미군정을 경험했고 아직까지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을 ‘제국의 군도(archipelago of empire)’라는 용어를 통해 개념화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을 분석했다. 그는 이 군도의 존재야말로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영역적 또한 제국주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the clearest territorial (and therefore imperial) element in the American position in the world.” Cumings, 2009: 395). 커밍스는 미국은 전 세계 153개국 737개에서 860개 사이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영역적 제국(territorial empire)’으로 이는 기존의 제국들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이다(위의 책, 393). 특히 최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첨예화되고 있는 군사적·영역적 갈등의 경우 미국의 대외전략 측면에서 단지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미 제국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영역적인 측면에서 제국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⁴⁾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지정학과 지정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정치경제적 분석에서 성급하게 한 가지 논리나 이해의 선차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두 논리가 맥락에 따라 어떻게 관계 맺음을

4) 미국 제국의 영역적 성격과 지정학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문제뿐 아니라, 한국전쟁에서부터 베트남을 거쳐 중남미와 세계 각지에서 자행한 미국의 군사폭력과 살상의 역사에 대해 “완전히 평화롭지는 않았다(not entire peaceful)”라는 스미스의 표현은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Smith, 2005a: 147).

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의 지리정치경제학을 설명하는 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에 대한 그의 비판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는 열렬한 유물론자(fervent materialist)로(Mitchell, 2014: 215), 애쉬 아민(Ash Amin)이나 나이절 스리프트(Nigel Thrift) 등 이른바 신비판지리학(Neo-critical geography) 등에서 표방한 ‘평평한 세계(flat world)’ 이데올로기 또는 담론 중심의 비판지정학에 관해 학문적 논쟁을 서슴지 않았다(Smith, 2005b). 2000년 *Political Geography*에 발표한 논문 “Is a critical geopolitics possible? Foucault, class and the vision thing”에서 그는 비판지정학의 한계와 문제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스미스는 비판지정학이 가능한지 또는 정말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비판을 제기했는데, 특히 비판지정학의 텍스트 읽기에서 젠더와 인종의 문제는 특권화되고 있는 반면, 계급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⁵⁾ 즉 지정학자들이 주로 백인이고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의 계급적 기반에 대한 인식도 지정학자들의 담론을 해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미스의 이러한 통찰에서 드러나듯이, 비판지정학의 지정학적 담론에 대한 분석에서 계급의 문제에 대한 경시는 반성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계급적 지위와 정체성이 지정학적 담론과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⁶⁾

그럼에도 그가 지정학적 비전(vision), 재현(representation), 또는 담론

5) 이외에도 스미스는 비판지정학자들의 시각화(visualization)를 비판했는데, 이들은 연구자의 객관적·중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반면에, 그들은 텍스트 읽기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팬옵티시즘(panopticism)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텍스트로서의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독해가 사회적 관계와 유리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Smith, 2000).

6) 그의 이러한 후기구조주의 지리학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뒤에서 다룰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에서도 드러난다(Smith, 2008a; 2008b).

(discourse)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스미스는 9·11사태가 미디어를 통해 특정한 선택적인 방식으로 재현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의 9·11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9·11 이후 세계에 대한 이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목했다(Smith, 2001; 2011). 즉, 9·11은 뉴욕에서 벌어진 지방적 사건(local event)이자 비행기를 납치한 테러범에서부터 희생자들 모두 다국적으로 구성된 세계적 사건(global event)이었는데, 이를 국가주의적 차원으로의 스케일링(nationalist scaling)했으며, 여기에 대중매체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즉, 부시 대통령 등 정치인들과 주요 언론들이 9·11사태를 공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attack on America)’으로 프레임하면서 정치적으로 효과적으로 동원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미국인들을 세계 테러리즘의 희생자로 자리매김시키면서 외부적으로는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국가안보 국가(national security state)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국가 스케일 중심으로 지정학 담론을 강화시킨 것과 동시에 배제의 방식도 함께 작동했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센터뿐만 아니라 펜타곤에도 비행기가 충돌했고 184명이 사망했음에도, 미디어에서는 세계무역센터의 충돌 장면만 끊임 없이 상영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통해 우리는 9·11테러를 떠올릴 때마다 세계무역센터가 불타는 장면은 비교적 쉽게 연상하는데 반해, 펜타곤의 한쪽 면이 붕괴된 장면은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스미스는 이에 대해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공격과 함께 펜타곤에 대한 충돌 역시 9·11을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국가 차원의 이슈로 스케일링하는데(또는 애국주의를 고양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상업기가 세계군사력의 본부에 충돌했다는 것은 오히려 미국 권력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펜타곤에 대한 충돌은 9·11사태를 재현할 때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Smith, 2001: 632). 또한 ‘미국(또는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지배담론에서는 전 세계 90개국 이상의 외국인들의 죽음은 어디에도 기억되고 있지 않다.

3. 두 번째 키워드: 제국

9·11 직후 프랑스 르몽드에는 “우리 모두는 미국인이다(We are all Americans)”라는 제목의 글이 실릴 정도로 9·11테러의 아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Colombani, 2011). 그러나 5년밖에 지나지 않아 2006년 영국 가디언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인이 아니다(We are no longer all Americans)”라는 제목의 논평이 실렸다(The Guardian, 2006). 이 글의 주장은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중동지역을 민주화시킨다는 명목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지적하듯이 9·11사태는 미국의 지배 엘리트에게 세계의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데 황금 같은 기회였으나, 오히려 이후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발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Smith, 2011: 204). 스미스는 미국 제국의 역사적·지리적 변천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째, 미 제국의 연속성과 비연속성과 함께, 둘째, 미 제국과 지리에 관한 문제이다. 그는 2000년대 초반과 중반에 출판한 2권의 저서—*American Empire: Roosevelt's Geographer and the Prelude to Globalization* 과 *The Endgame of Globalization* —를 통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을 제공했다.

1) 제국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최근 컬럼비아 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개발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강한 어조로 미국의 전쟁광들(warmongers)을 비판하면서, 이들에 맞섰던 대통령과 그렇지 않았던 대통령들을 구분했다. 반전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외교를 통한 대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글은, 다른 편으로는 좋은 제국과 나쁜 제국으로 미국의 역할을 구분 지

으면서, 여전히 외교를 통한 세계지배질서의 구축과 유지라는 미국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다(Sachs, 2015). 이러한 접근은 제프리 삭스뿐 아니라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등 자유주의 성향의 학자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미국이 수행한 세계전략의 실패는 네오콘으로 대표되는 보수주의 세력의 미국 예외주의 또는 일방주의 외교 때문이며, 미국은 전쟁 등의 지정학적 개입 대신 세계무역 확산 등 지경학적 접근을 통해 ‘온화한 제국(gentle 또는 liberal empire)’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중요한 이론적 공헌은 미국 제국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미국 제국의 역사적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중심으로 18세기 이래 제국의 성장, 변화, 그리고 쇠퇴의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즉,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또는 보수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세계전략의 차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 이면에 지속적인 것으로 이어져 작동하고 있는 연속적인 성격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제프리 삭스 등 자유주의 진영의 미국 세계전략 변화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국가주의(nationalism)와 글로벌리즘(globalism) 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미국 제국 건설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정치와 경제적인 영역에서 표출된 세계차원의 야망(U.S. global ambition)은 본질적으로 국가주의적 성격을 띠었으며, 또한 미국의 국가주의는 글로벌 차원에서 권리 또는 이익 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국가의 이익에 기반을 둔 미국 주도의 글로벌리즘의 추구라는 지향은 보수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미스는 미국 제국의 역사에서 세 가지 순간을 주목했다. 첫 번째 순간은 1898년에서 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으로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하면서 미국이 최초로 글로벌 권력을 추구하게 된 순간이며, 두 번째 순간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부에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해 자유세계의 리더

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했던 시기이고, 마지막 순간은 1989년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화 프로젝트가 전면화된 시기이다. 스미스가 특히 주목했던 점은 클린턴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과 네오콘 주도하에서 진행된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등과 같은 신보수주의 전략이 그 수단에서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지향이나 목적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다(Smith, 2006: 8). 즉, 앞서 언급했듯이 안보를 위한 또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목적 이면에는 지경학적 이해와 비전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는 석유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로 세계경제체제와 인프라를 통제하려는 의도의 발현이었으며, 여기서 경제 전략의 방향성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띠었다(Smith, 2005a). 따라서 지정학적 측면이 아니라 지경학적 이해와 실현 방식이 미국 제국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쟁은 자유주의 세력과 모순되는 정책이나 전략이 아니며, 오히려 자유주의적 지정학적 비전을 세계 차원에서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스미스는 이를 ‘세계화의 종반(endgame of globalization)’이라 해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는 미국 제국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20세기 초반 윌슨 대통령의 지경학적 세계에 대한 비전을 충실하게 따른 상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스미스의 주장은 미국 제국의 권력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서 국내 정치세력의 성격(보수주의 vs. 자유주의)에만 천착하는 인식론적 경향의 문제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반제국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전략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 제국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해 강조했지만, 스미스의 분석이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간 제국주의 전략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즉,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제국의 논리는 변함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스미스는 미국 제국 권력의 작동에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측면을 동시에 강조했다. 9·11사태는 미국의 지배계급에게 전지구적

차원에서 헤게모니를 강화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대외적으로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앞세우기보다는,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미국의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내세우며 제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결과 이라크전쟁은 미국 제국 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미스는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추구한 세계화 프로젝트의 최종전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또는 패배)했다고 평가한다. 이 실패를 ‘three Is’로 구체화했는데, 이는 고립된(isolated), 무능한(incompetent), 불가능한(impossible)을 의미한다. 즉,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고 고립되었으며,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하면서 무능함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테러리즘을 근절하고 세계 지배질서를 회복하려는 미국의 군사계획 자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Smith, 2005a: 195~198). 따라서 제국의 작동방식이나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비연속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스미스는 이러한 비연속성의 측면을 클린턴 정부나 부시 행정부와 각각 연관된 자본 권력의 차이를 통해 설명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반면에, 부시 행정부의 경우 휴스턴이나 로스앤젤레스로 상징되는 산업자본, 특히 에너지자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디 체니 부통령 등 많은 네오콘 인사가 에너지 관련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스미스가 주목한 부분은 이러한 기반 자본의 차이로 클린턴 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이 세계시장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권력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면, 9·11 이후 부시 행정부의 초점은 ‘지리’에 모아졌다는 것이다(“all about geography.” Smith, 2005a: 24). 스미스는 여기서 지리를 석유 자원의 통제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는데, 사실 부시 행정부 주도하의 미국 제국 권력의 지리 또는 영역적 속성을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판타나모 기지의 설치에서 찾을 수 있

다. 판타나모 기지야말로 미국 제국의 비연속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 이전의 미국 정권들이 합법적이고 인권을 존중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시 행정부하에서의 제국 권력의 작동 방식이 그만큼 폭력적이고 노골적이었던다는 뜻이다. 그러나 스미스에게 판타나모 기지 설치의 핵심은 이 공간이 보여주는 정치적·법률적 예외성이라기보다는, 미 제국의 글로벌 자유주의(global liberalism) 역사와의 단절인 동시에 미 제국이 추구한 자유주의의 약점과 곧 다가올 실패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러한 실패가 자동적으로 새로운 질서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았다. 스미스의 미국 제국에 대한 분석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추구에서 드러나는 제국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강조와 관련이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실패한 현실과 이에 따른 헤게모니 약화에 환호만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지적했듯이 반제국 정치투쟁의 대상은 신보수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20세기 초반 이래 전쟁과 제국주의 팽창의 지경학적 논리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작동한 경제적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지리와 제국

미국 제국의 역사적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스미스는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라는 비전하에 펼쳐진 미국 제국 팽창의 역사에서 거세당한 제국의 지리를 새롭게 조명했다. 즉, 미국 제국 팽창의 역사에서 ‘지리의 종말(end of geography)’이 어떻게 지배담론으로 등장하고 발전했으며,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 밝혔다. 특히 그의 저서 *American Empire*에서 지리학자 아이자이어 보먼(Isaiah Bowman)을 중심으로 한 미국 세계화 전략의 역사지리에 대한 다양한 자료 분석과 아카이브 연구를 통해 미 제국의 건설과정에 대해서 신선한 분석을 발전시켰다 (Smith, 2003).

20세기 미국의 팽창과 함께 등장한 ‘미국의 세기’라는 비전은 지리를 고정된 과거 또는 유산으로 치부했는데, 이는 19세기 말 미국이 프런티어 개척을 마무리하면서 절대적 지리적 공간(absolute geographical space)의 팽창이 완료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시기는 미국 대륙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식민지 개척을 통한 새로운 절대적 공간의 확장이 거의 완료된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은 과거 다른 제국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제국을 구상했고, 여기서 핵심은 지리를 넘어선 미국의 세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Smith, 1999). 지리는 과거 유럽 제국의 산물이며, 미국의 세기는 탈지리와 탈공간화(de-spatialization)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미국 제국의 부상과 함께 등장한 ‘지리의 종말’ 담론의 최초의 형태는 미국 제국하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상징하는 ‘지리를 넘어서(beyond geography)’라는 비전이였다. 역설적이게도 미국 제국의 팽창 과정에서 나타난 지리적 무지(geographical ignorance)에는 지리학자들이 깊게 연루되어 있었으며, 그 대표적 인물이 미국 제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보먼이었다. 스미스는 지리적 지식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제국의 대외전략의 도구이자 반혁명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지리학과 제국주의의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 보먼의 지리적 상상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Castree, 2013). 보먼은 미국 제국은 유럽 제국과는 상이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건설을 통한 절대공간의 확대가 아니라 이미 개척이 완료된 세계체제에서 다양한 장소와 지역을 연결시키면서 팽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독일 지리학자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의 레벤스raum(Lebensraum)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의 지정학적 개념인 레벤스raum을 미국의 레벤스raum(American Lebensraum)으로, 영역적 성격의 레벤스raum에서 경제적 레벤스raum(economic Lebensraum)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Smith, 2003: 28). 보먼은 미국의 경제적 레벤스raum(American economic Lebensraum)은 독일의 지정학적 이해만을 앞세운 ‘하나를 위한 레벤스raum(Lebensraum for one)’과는 달리 전 세계 모두를 위한 레

벤스라움(*Lebensraum for all*)이라고 주장했다(*Ibid.*, 319). 즉, 이러한 주장은 지경학적 비전을 통한 제국의 건설이라는 미국 글로벌리즘의 기반이 되었으며, 동시에 제국의 탈공간적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20세기 초·중반의 흐름은 제국의 팽창과 함께 지속되어 1990년대 초반 탈냉전과 함께 세계화의 확산으로 더욱 강력한 담론적 효과를 발휘했다. ‘지리의 종말’이라는 주장은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 등과 같은 구호의 확산과 함께 세계화의 대표적인 담론으로 대두되었다. 이는 미국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세계의 동질화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스미스는 세계화가 1990년대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20세기 초 ‘미국의 세기’ 비전과 긴밀히 연관된 지리에 대한 인식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따라서 탈냉전 세계화는 미국 제국의 프로젝트가 새로운 형태와 스케일에서 재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미스는 ‘지리의 종말’이라는 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지리적 공간이 경제적 팽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세기는 지리적 시차(*geographical parallax*)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불균등 발전의 세기(*the century of uneven development*)’였다(*Smith*, 1999: 8). 즉, 정복할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 사라지면서 한 지역의 개발이 다른 지역의 저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자본주의 개발의 특성상 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지리를 넘어서’ 또는 ‘지리의 종말’ 등과 같은 담론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효과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 현실이 가려졌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세기는 기존의 식민지 또는 프런티어 개척을 통한 지리적 공간의 팽창에서 불균등 발전으로의 전환을 불러왔고, 이는 지리의 종말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지리적 역동성이 전면화된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이를 ‘자본주의에 의한 지리적 재편성(*geographical retooling of capitalism*)’이라고 표현했다(*Ibid.*). 따라서 20세기는 지리가 그 중요성을 상실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리가 가장 심층적인 사회적 관계와 그 결과물을 반영

하는 중요한 정치경제적 분석대상이 된 시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이러한 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탈지리적 세계(post-geographical world)에 살고 있다는 식의 허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Smith, 1999: 8).

그렇다면 ‘미국의 세기’와 함께 작동했던 ‘지리의 종말’ 담론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스미스는 이런 탈지리, 탈공간화는 미국 제국의 성격과 역사에 대한 탈정치화라는 중요한 정치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이러한 담론은 미국의 이미지를 식민지 건설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유럽 제국과는 차별화된 반정복(anti-conquest)국가로 포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과 영토적 속성에 기반을 둔 제국의 정치지리적 함의를 피리시키는 효과를 생산했다. 또한 공간적 함의가 짙은 ‘미국 제국(American Empire)’이라는 단어 대신에 시간적·역사적 측면을 주목한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사용한 것도 이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리의 상실은 동시에 정치의 상실을 의미하고, 때문에 지리를 회복하는 것은 정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미스가 이 연구를 통해 지리의 회복을 주장했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지리의 종말 시대에 학문으로서의 지리학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제국의 팽창과 세계화 확산과 함께 진행된 탈정치화를 극복하고 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치화(repoliticization)를 꾀하는 것이었다.

결국 스미스는 미국 제국 질서의 구축과 유지는 물질적으로 지리의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국의 지배와 착취를 가림으로써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먼과 같이 제국의 이익을 위해 지리적 지식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제국의 논리를 폭로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세계 전략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세기가 저물어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스미스의 통찰은 이러한 제국의 교체와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에서 지리학자들의 적극적인 비판적 실천과 이론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지리학자들의 노력이 긴요함을 보여준다.

4. 세 번째 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제국의 지경학적 논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스미스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분석을 제공했다. 신자유주의의 부상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의 도래로 이해하고, 이를 첫째, 사유재산제도, 경쟁, 사익(self-interest)에 기반을 둔 애덤 스미스식 경제체제와 둘째, 사익의 추구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최선의 원칙으로 여기는 존 로크식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신자유주의』(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닐 스미스의 저서 *The Endgame of Globalization*에서 비판지리학의 두 거두는 신자유주의는 경제 이론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계급 프로젝트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Harvey, 2005; Smith, 2005a).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주의 정책에 따라 계층 간 부의 재분배가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면, 신자유주의는 자본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도구로 그들이 잃어버린 부와 계급권력을 되찾기 위한 프로젝트이자 일종의 보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미국의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엘리트들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과 인권을 동일시하는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면서 결속시켰다(Smith, 2005a: 146).

스미스는 이와 같은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를 ‘독성 자본주의(Toxic capitalism)’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정의했다(Smith, 2009a). 여기서 그는 나오미 클라인이 ‘쇼크 독트린(The Shock Doctrine)’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결국 새로운 뉴딜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그녀와 같은 신자

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상적 작동이라는 대안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2008년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그 자체가 독성(toxic)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Toxicity is written into the DNA of capitalism” 위의 책: 410).⁷⁾ 실제로 경제 위기 이후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심화라는 현실은 일시적인 케인즈주의적 처방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스미스는 이를 비단 현실 인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폐해와 위기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대응의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부 좌파는 새로운 뉴딜 또는 오바마의 당선을 승리로 간주하지만, 스미스는 신자유주의(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조직화된 저항이 미미한 현실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들이 새로운 질서의 구축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의 이러한 통찰이 얼마나 예리했는지는 경제 위기 이후 7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야 알 수 있다. 많은 이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그 생명력을 다했다면서 신자유주의 이후의 질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지만(c.f. Brand and Sekler, 2009), 최근 그리스 사태의 해결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질서가 건재함을 목도하고 있다(Monbiot, 2015).⁸⁾

7) 이와 함께 스미스는 후기 구조주의에서 신자유주의를 담론으로만 접근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담론적 구성물로만 고려하는 것은 담론 이면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리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Smith, 2008b). 스미스는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해체적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러한 접근에만 매몰되는 것은 정치적 저항의 실질적 타격을 가리면서 정치적 선택, 변화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논의한 비판지정학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스미스는 담론으로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이 분명 유의미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된다면 저항의 여지는 자연스럽게 봉쇄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8) 《Le Mond Diplomatique》는 “Neoliberalism is alive and well”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임을 지적했다(Gelwyn, 2014).

이런 맥락에서 그는 하버마스의 모더니즘에 대한 표현을 차용해서 경제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소멸하고 있는(dominant but dead)”이라고 규정했다(Smith, 2008s).⁹⁾ 이와 관련해 스미스는 역사적 측면과 정치적 저항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조망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신자유주의를 불가피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신자유주의 역시 자본축적의 역사에서 구체적인 한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mith, 2008a). 다음으로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은 결국 좌파 진영에서 유의미한 대안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미스는 좌파진영의 무능함을 비판하면서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폭력이 자본주의의 대안을 꿈꿀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 자체를 봉쇄해버린 부분도 주목했다. 이러한 폭력 때문에 혁명의 가능성은 현실과는 괴리된 유토피아니즘으로 치부되었으며, 자유시장 자본주의라는 틀을 벗어난 어떠한 사회적 행동도 불가능하게 여겨졌다는 것이다(Smith, 2008b). 마거릿 대처의 ‘TINA(There is no alternative)’와 같은 구호들의 전면화로 신자유주의 체제 외에는 더 이상 다른 대안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비판진영은 비판을 넘어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급진적 시장만능주의에서 ‘리버럴 신자유주의(liberal neoliberalism)’, ‘웃는 얼굴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with smiling face)’ 등의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저항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Smith, 2008b; Springer, 2015). 더욱 심각한 현실은 이러한 리버럴 신자유주의의 이면에는 테러와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가안보국가가 강화되면서, 강력한 안

9) 스미스는 다른 논문(Smith, 2008b)에서 ‘dead,’ ‘dominant’와 함께 ‘defeatable’, 즉 ‘이겨낼 수 있는’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는데, 이를 통해 위기에 대한 조직화된 대응이 미흡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낙관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보국가와 연성화된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결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5. 나가며

미국 제국의 권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스미스는 어떤 변화를 꿈꿨을까? 아니 과연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위에서 논의했듯이 스미스는 신자유주의 폭력성을 빈부격차의 확대 또는 빈곤의 심화와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안 정치에 대한 상상력을 압살해버리는 정치적 측면 역시 함께 주목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신자유주의에 의한 정치적 폭력 이상으로 좌파 진영의 정치적 무대응이 더 비극적이라고 한 단했다. 그러나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많은 이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은 없다고 선언할 때에도 스미스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정치적 혁명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후기구조주의 등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비판지리학의 흐름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더 이상 계급과 같은 위계(hierarchy)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신비판지리학자들을 향해 스미스는 그들이 기존 비판지리학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평한 세계(Flat World)’를 부르짖었던 신자유주의자들의 세계관과도 조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Smith, 2009b). 스미스는 계급, 인종, 젠더와 함께 자본주의의 다른 많은 위계가 존재하는 한 신비판지리학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이 외치는 새로운 세계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스미스는 그람시의 “이성으로 비판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라는 경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대표적

인 비판지리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중요한 이론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가 아직까지 단 한 권도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지리정치경제학, 제국, 신자유주의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은 헤게모니 경쟁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유의미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미국 제국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앞으로 미중 간 긴장과 경쟁이 심화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평택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한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으며, 최근에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구도의 첨예화와 함께 최근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등 신자유주의 전략의 새로운 전면화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스미스의 이론적·실천적 성과들에 대한 성찰이 더욱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원고접수일: 2015년 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12일

최종원고접수일: 2015년 9월 19일

❖ Abstract

Neil Smith's Geopolitical Economy, Empire, and Neoliberalism

Seung-Ook Lee

This paper examines Neil Smith's theory via three keywords—geopolitical economy, empire, and neoliberalism. First, to comprehend the complex changes in the contemporary world, Smith notes various couplings between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and makes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theorization of geopolitical economy. Second, through historical-geographical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the U.S. Empire, he provides a critical insight into historical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U.S. Empire and critically discusses how the production of geographical knowledge has served the Empire. Finally, Smith's critical analysis of neoliberalism and global economic crisis offers an important perspective on prospects for anti-neoliberal practices as well as neoliberalism as class project. Smith's insights are particularly valuable to us who are facing the hegemonic shifts on the peninsula.

Keywords: Neil Smith, Geopolitical Economy, Geopolitics, Geo-economics, Empire, Neoliberalism

참고문헌

- 김효정. 2015.3.15. “美中 차관보 이례적 동시방한…사드·AIIB 논의 주목”.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5/0200000000AKR20150315022600043.HTML>.
- 이재호. 2015.7.24. “사드배치, 미국 진짜 의도는 따로 있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362&ref=nav_search.
- 조준형. 2015.8.9. “미국, ‘박대통령 中열병식 불참해달라’ 한국에 요구”. 《연합뉴스》 8월 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9/0200000000AKR20150809010700073.HTML?input=1179m>.
- 최영진. 2014.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창원공단 설립 전사(前史)』. 《대한지리학회지》 제49권 제2호, 178~199쪽.
- Arrighi, G. 2007.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and New York: Verso.
- Brand, U. and N. Sekler (eds.) 2009. “Postneoliberalism~A beginning debate.” *Development and Dialogue* 51.
- Castree, N. 2013. “Obituary.” *The Geographical Journal* 179(1), pp. 94~95.
- Colombani, J-M. 2001. “We are all Americans,” *Le Monde* 12 September, http://www.worldpress.org/1101we_are_all_americans.htm.
- Cowen, D. and N. Smith. 2009. “After geopolitics? From the geopolitical social to geoeconomics.” *Antipode* 41(1), pp. 22~48.
- Cumings, B. 2009. *Dominat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Glassman, J. 2015. “Introduction.” The Peter Wall Institute International Roundtable ‘Geopolitical Economies of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26~29 May, <http://geopolecon.pwias.ubc.ca/>.
- Harvey, D.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S-O. 2013. *Is China Colonizing North Korea? Unraveling Geopolitical Economy in the Production of Territory*.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The Ohio State University.
- Mitchell, D. 2014. “Neil Smith, 1954~2012: Marxist Geographe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4(1), pp. 215~222.

- Monbiot, G. 2015. "Greece is the latest battleground in the financial elite's war on democracy." *The Guardian* 7 July,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5/jul/07/greece-financial-elite-democracy-laissez-faire-neoliberalism>.
- Natter, W. 2005. "On the geo-economic pivot of history: Neil Smith's American Empire." *Political Geography* 24, pp. 245~250.
- Sachs, J. D. 2015. "Saying no to the warmongers." *Project Syndicate* 17 July,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iran-deal-us-security-state-by-jef-frey-d-sachs-2015-07>.
- Selwyn, B. 2014. "Neoliberalism is alive and well." *Le Mond Diplomatique* December, <http://mondediplo.com/blogs/neoliberalism-is-alive-and-well>.
- Smith, N. 1999. "The lost geography of the American century." *Scottish Geographical Journal* 115(1), pp. 1~18
- _____. 2000. "Is a critical geopolitics possible? Foucault, class and the vision thing." *Political Geography* 19, pp. 365~371.
- _____. 2001. "Scales of terror and the resort to geography: September 11, October 7."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9, pp. 631~637.
- _____. 2003. *American Empire: Roosevelt's Geographer and the Prelude to Globa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05a. *The Endgame of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5b. "Neo-critical geography, or, the flat pluralist world of business class." *Antipode* 37(5), pp. 887~899.
- _____. 2006. "The endgame of globalization." *Political Geography* 25, pp. 1~14.
- _____. 2008a. "Neoliberalism: dominant, but dead." *Focaal-European Journal of Anthropology* 51, pp. 155~157.
- _____. 2008b. "Neoliberalism is dead, dominant, defeatable~then what?" *Human Geography* 1(2), pp. 1~3
- _____. 2009a. "Toxic capitalism." *New Political Economy* 14(3), pp. 407~412.
- _____. 2009b. "The revolutionary imperative." *Antipode* 41(S1), pp. 50~65.
- _____. 2011. "Ten years after." *The Geographical Journal* 177(3), pp. 203~207.
- Springer, S. 2015. "Postneoliberalis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47(1), pp. 5~17.
- The Guardian. 2006. "We are no longer all Americans." 7 September,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06/sep/07/yamani>.